

신예 극작가 임수림 기획 '대본리딩 덕질살롱' 참여기

광주일보 문화예술 매거진 11월호

관객과 함께... 낯선 '참여형 리딩극' 속으로

영화 '완벽한 타인' 극화 '빙의된 사람들' 관객이 공연 현장에서 배우로 '이색 경험' 매주 수요일 '벙커111' 등서 공연 이어가

S#29, 29 테라스.
한 무리 사람들이 테이블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걸려오는 모든 연락을 공유하는 게임에 심취해 있다. 이재규 감독의 영화 '완벽한 타인' 중 한 대목을 극화한 장면이다.
지난 30일 저녁 광주 동구의 소극장 벙커 111에는 신예 극작가 임수림이 기획한 참여형 리딩극 '빙의된 사람들'에 출연하는 고정 배우 및 관객들이 자리했다.
이날 기자에게 주어진 배역은 수사사 세경(김지혜 분)의 전 남자친구 '연우'. 즉석에서 세경과 전화하는 모습을 열연해야 했다. 그녀의 남편인 준모(조현근) 앞에서 애견 '알버트'의 교배 요령을 묻는 역할이었다.



지난 30일 벙커111 소공연장에서 참여리딩 공연 '빙의된 사람들'이 펼쳐졌다. 기획자, 고정배우 및 일반인 참가자들의 모습.

대본을 받아 보니 '강아지를 마사지하는 방법'부터 '애견 발기 부전 치료법', '교배 자세' 등을 묻는 민망한 대사가 실려 있다. 준모에게 오해의 소지를 남기기 충분한 내용은 원작에서도 큰 갈등의 씨앗이 됐다.
연기 경험이 전무함에도 이 까다로운 연기를 끝마칠 수 있던 까닭은, 이날 작품이 참여형 리딩 공연을 표방했기 때문. 초보자도 쉽게 즐길 수 있는 공연은 기대 이상의 감각을 선사했다.
'리딩 공연'은 수도권 신작 쇼케이스 등에서는 자주 채용하는 방식이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없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스타배우 최재림, 윤공주, 아이비 등이 출연한 뮤지컬 '지킬엔 하이드'도 이 방식으로 관객들을 만났다. 복잡한 대본 암기, 표정연기 등은 모두 '선택사항'. 오직 감정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은 리딩 공연만의 장점으로 다가온다.
임 작가는 "그동안 대본을 실감 나게 읽는 것에 관심이 많은 청년들을 모아 '대본리딩 덕질살롱'을 진행해 왔다"면서 "연극을 좋아하지만 참여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던 '예비 배우'와 함께하고픈 생각에 이번 공연을 준비했다"고 기획 의도를 밝혔다.

공연이 시작되자 속초고 동창 석호, 태수, 준모, 영배 네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저녁 식사를 한다.
관객들에게는 총 11개의 배역이 주어지며 이들과 호흡을 맞췄다. 딸 소영을 비롯해 태수 엄마, 경찰관, 폐북남, 인공지능 시리 등 크고 작은 역할들은 저마다 극의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 감초 캐릭터다.
테이블 두 개 만이 전부인 단출한 구성이었으나 임 작가는 "리딩 공연의 특성을 염두에 두고 역동적인 장면보다는 대사가 많은 작품, 장면을 텍스트로 선정했다"고 했다.
달빛을 연상시킨 조명, 벨소리 'I'll survive' 등 음향효과와 모두 일관되고 유서한 구성이었다. 서사를 끌고 가는 핵심은 '목소리'였다. 책상을 내려치거나 백스테이지로 퇴장하는 등 비언어적 연기도 곁들여졌다.
흐름에 온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자신의 파트를 놓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가자들은 작품에 고도로 몰입하는 모습이었다.
극이 전하는 메시지도 좋았다. 모든 인간은 '사회적 나', '개인적 나', 그리고 '숨겨진 나'로 구분되며 자신의 비밀스런 측면이 꼭 폭로될 필요는 없다는 것.

이번 '완벽한 타인'과 같이 '비포 선라이즈', '맨 프럼 어스'처럼 대사가 많은 작품은 리딩 공연에서 안정적인 선택지가 될 것 같다. 다만 추후 일반인 배우들의 대본을 늘리거나 조금 더 동적인 텍스트로 확장해가는 모습도 고려해볼 수 있다.
유독 낭랑한 목소리로 극에 자연스럽게 녹아 든 일반인 참가자가 눈에 띄었다. 석호(정인호)와 예진(임수림)의 딸 '소영' 역을 연기한 김소연(25·봉선동) 씨다.
김 씨는 "연극·영화 전공자는 아니지만 평소에 연기에 관심이 많아 미리 영화까지 찾아 보고 이번 연극에 참여했다"며 "오늘만큼은 객석을 벗어나 '일일 배우'가 된 것 같아 카타르시스가 느껴졌다"고 했다.
이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극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리딩 공연'이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다. 마치 영화 속에 들어와있는 것처럼 생생하고 이색적인 경험이었다"고 덧붙였다.
리딩살롱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마다 소공연장 벙커111 등에서 계속된다. 사전신청을 통해 일일게스트로 참여할 수 있으며, 리딩 작품은 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글·사진·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연광



깊어가는 가을 '익어가는 우리 술의 매력' '노벨문학상' 수상과 의미...한강 이야기

찬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뜨끈한 국물과 막걸리 한 사발. 먹거리가 풍성한 남도에서는 밥상 위 올려진 반찬 하나라도 충분한 안주가 되곤 한다.
광주일보가 발행하는 문화예술매거진 '연광' 11월호는 깊어가는 가을 '익어가는 우리 술의 매력'을 특집으로 준비했다. 쌀과 누룩, 물 세 가지 재료만으로 빛나는 전통주는 막걸리부터 청주, 증류주까지 다양하다. 최근 지역 특산물과 현대적 감성을 가미한 젊은 감각의 우리 술들이 선을 보이고 있다. 남도 전통주의 명맥을 이으며 우리 술에 인생을 건 청년 양조인들의 술 세계에 빠져본다.
예향 초대석은 과학과 대중을 이어주는 이정모 펄리컬러과학관장을 만나고 왔다. 이 관장은 저술과 대중 강연, 방송활동을 통해 누구나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해 '과학 거간꾼', '사이언스 커뮤니케이터'로 불리고 있다. 최근 여섯 번째 대명종에 초점을 맞춘 신간 '잔란한 멸종'을 펴낸 '털보 관장' 이정모의 과학인생과 책 이야기를 듣는다.
'문화 화제'에서는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야기를 담았다. 지난 10월 10일 스웨덴 한림원이 발표한 2024 노벨문학상 수상자 소식에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이 깜짝 놀랐다. 아시아 작가로는 12번째, 여성 작가로는 18번째 수상자가 된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대한민국의 경사이기도 했다. 한국 첫 노벨문학상의 수상과 의미, 아버지 한승원 소설가가 들려주는 딸 한강 이야기, 문학-

출판계의 반응 등을 소개한다.
이번호에서 심도 있게 준비한 기획 '지금'은 아트페어 전시시대'도 주목할 만하다. 여러 개의 화랑이나 갤러리가 모여 미술품을 판매하는 아트페어 미술시장의 대세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은 '아트:광주:24'는 호남 최대의 규모를 자랑하지만 문화광주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아시아의 남부 1호로 떠오른 '키아프·서울'의 벤치마킹을 통해 아트광주의 미래를 모색해 보는 시간도 갖는다.
'맛과 멋 함께, 남도 유람'은 장성으로 떠나는 늦가을 여행이다. 장성은 예로부터 '문불여장성(女不長城·학문에 있어 장성한 곳)'이라 일컬어졌다. 하서 김인후 선생을 배향한 필암서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다. 장성호 수변길과 축령산 하늘길 등은 도시인들에게 힐링을 안겨준다. '독도살과자'로 '돈쫄' 난 제조업체 '올바름'과 '불태산 전통두부' 이야기를 들어보고 대한민국 민간정원 100호 '루몽드' 카페에서의 낭만 가득한 가을도 만나본다.
한국학중앙연구원과 공동 기획한 '호남 서화가 열전' 마지막 시간으로 초상화가 석지 채용신의 그림 이야기와 에필로그를 들어보고 '호남의 누정'은 조선 선비 은일의 미학을 품은 정자 광주 아연당을 찾아간다. 이와함께 월간 '예향' 마흔 해 게재를 담은 아카이브전과 기념식 현장을 화보로 소개한다.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김남주 시인 30주기 '삶과 문학정신' 재조명

전남대 인문대학
호남학연구원
학술대회 성료



김남주(1946~1994) 시인은 70·80년대 탄압에 맞서 싸운 '전사시인'이었다. 청춘을 철창에서 보내며 독재 권력에 항거했던 '혁명 시인'이었다.
올해는 시인이 떠난 지 3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다. 한 세대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자유와 통일, 민중에 대한 사랑을 시와 행동으로 옮겼고 보여주었던 시인의 열망은 지금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과 감동을 주고 있다.
김남주 시인 30주기를 맞아 열린 기념 학술대회가 성료됐다.
전남대 인문대학(학장 이성원)과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은 지난 2일(오전 10시) 김남주 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남대 김남주기념홀에서 '김남주 시인의 삶과 문학정신'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는 모두 7명 전문가들이 김남주 시인의 생애와 문학세계에 담긴 의미 등을 조명했다.
특히 이날 기조강연은 5·18기념재단 이사장인 김준태 시인이 참석해 '2024 김남주론'을 주제로 김남주 시인의 시편들이 지니는 의미와 가치 등을 이야기했다.
김남주와 동향 해남 출신인 김준태 시인은 "김남주

시인은 어둠의 시대 민족과 통일에 앞장섰던 선각자이자 사람과 생명, 평화의 세상을 외쳤던 민족시인이었다"며 "김남주의 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세상에 현존하며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는 생명의 시"라고 전했다.
시인인 임동환 한신대 문창과 교수는 '프로메테우스의 모험과 부귀의 힘'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김남주의 시가 지닌 힘과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 이야기했다.
전남대 영어교육과 유희석 교수는 '김남주 시의 '상속'에 관하여'를, 광운대 국문과 고영철 교수는 '혁명 전사-시인' 김남주가 수행하는 세계문학'에 대해, 전남대 국문과 정민구 교수는 '김남주의 해남과 광주, 그리고 시집 '농부의 밤'을, 서울 과기대 문창과 최진석 교수는 '투사를 위한 시학'을 발표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준비를 해온 전남대 철학과 김양현 교수는 "민족과 통일, 그리고 민중을 위해 온몸을 내던졌던 시인의 삶에 대한 감동적인 드라마와 같았다"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여전히 유효한 김남주의 정신, 불의와 폭압에 맞선 불굴의 문학정신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5 동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 연수생 모집

국립남도국악원(원장 박정경·국악원)이 '2025 동계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에 참가할 연수생을 4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40명 모집한다.
전국 유·초·중·특수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참가자는 내년 1월 13일~17일 4박 5일간(합숙) 국악 실기 및 감상, 체험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실기 교육 능력 향상을 위한 공통과목 및 선택과목으로 구성된다.
공통 과목으로 '사물놀이', '장구 반주법'과 지역별 '민요'가 있으며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에게 배우는 '강강술래'도 예정돼 있다. 선택과목으로 '단소'와 '소금'을 추가해

실기 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학예연구관의 해설과 국악연주단 공연을 결집한 '렉처 콘서트'도 마련된다. 국악원 해외동포 및 국악단체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 중인 외국인들과 전통예술을 매개로 교류하는 장이다.
장악과 오지에 주무관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국악교육 교원직무연수'는 전통예술 교육 환경을 강화하기 위해 국악원에서 매년 운영해 온 프로그램이다"며 "접수 3분 만에 마감인 열 정도로 호응이 높고 강의 내용도 풍부하니 많은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국악원 누리집 교육/체험란에서 신청.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